



성경을 해방시켜라

교회 감독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 낸다

존 엘비 스펙 지음 · 한성수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원

한아름 공부방용

외부 반출 금지

성경을 해방시켜라

옮긴이/ 한성수 펴낸이/ 김준우

펴낸날/ 2002년 6월 20일

펴낸곳/ 도서출판 한국기독교연구소

Rescuing the Bible from Fundam entalism

A Bishop Rethinks the Meaning of Scripture

by John Shelby Spong

<>제6장, 12장<>

제6장 두 번째 계약

히브리 성경(구약성경)에 나타난 태도들이나 왜곡들 때문에 기분 나빠진 크리스천 교회들이 꽤 많을 것인데, 그러나 결국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첫 번째의 종교제도(구약종교 - 역자주)를 끝장내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크리스천들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며 안식일인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레위기에 있는 정결 음식법을 어기면서 많은 크리스천 가정의 아침 식탁에는 햄과 베이컨을 올리며, 미국 헌법의 제 13 수정안에 의하여 노예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히브리 성경의 주장을 무효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이 인정하는 바대로, 히브리 역사상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웅들이 실천했던 중혼제도(polygamy, 동시에 여러 명의 배우자를 갖는 혼인 - 역자주)가 이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한때는 성경에서 규범적이었던 실천들이 우리들에게는 불법이거나 혹은 비도덕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런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성경(신약성경)에 다다르면, 돌연히 그들의 등을 꼳꼳이 세우며 이 새로운 종교의 문자적 권위를 방어하려고 든다. 즉 신약성경에는 정결 음식법이 없으며, 중혼의 예도 없고, 안식일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주일의 첫날로 대치되었다.¹⁾ 그리하여 성경의 부정확함, 편견들,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들은 오히려 더욱 강력히 반대된다. 그런 가능성들은 그들의 신앙 체계의 권위를 너무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두려움이 높아지고 방어태세는 강화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게 바로 예수의 말씀이요, 바울과 그 밖의 제자들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한다. 이들 말씀들은 믿을 수 있고, 착오가 없으며 잘못도 없다는 것이다. 나와 함께 공중 앞에서 대화를 했던 한 텔레비전 전도자는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썼노라고 하셨으니 율법서는 모세가 바로 그 저자라고 하였다. “나는 당신보다는 예수를 신뢰합니다”라고 그가 말하자, 그에게 동정적인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성경의 구체적으로 크리스천 부분을 향한 이런 태도는 중요하고도 불가피한 질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서와 마가복음서는 사도(사도 apostle, 예수가 선택한 제자들 - 역자주)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누가나 마가는 어떤 복음서에도 선택된 열두 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그들의 증언 자료는 직접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본 것일 수가 없다. 또한 어떤 복음서에서도 예수가 실제로 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의 예수의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신 언어가 아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의 크리스천 공동체가 필요로 했던 메시지보다 원래 예수 말씀의 역사성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보존되었겠는가?

한 복음서에 예수 말씀이라고 인용한 것이 같은 복음서나 다른 복음서에 실린 예수의 다른 말씀과 조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면, 성금요일 및 부활절의 최후 계시가 내릴 때까지는 예수의 메시아 비밀을 지키라는 마가복음서의 강조점과 “나는 부활이다” 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시고 공공연히 선포하시는 요한복음서의 예수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 문자주의자들은 약 50년의 간격이 있는 바울과 요한 사이에 일어난 전통의 성장을 고려하고 있는가?

명백히 이들 난점들은 과거에도 느꼈기에, 성경무오설에 가해지는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경의 문자영감설(文字靈感說)이 등장하였다. 문자영감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성경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인간 기록자가 써내려 갔다는 것이다. 전체 텍스트에 행여 부조화가 드러난다면 이는 받아썬던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원천 그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쓸모 있는 변론이 아니며, 통상 문자주의자들이 밀려가다가 마지막에 등이 벽에 닿으면 내세우는 주장이다. 이는 교황무오설(教皇無誤說 papal infallibility)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교리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결코 잘못에 빠뜨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 없다. 그리하여 거룩한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역사상의 나약한 그릇에 그 오류를 돌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일견 정교하기는 하지만, 실상 결국에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알기로는, 간통하다 잡혔다는 여인의 이야기에서(요 8:6),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 말고는, 예수께서 무엇을 직접 쓰셨던 적은 없다. 예수는 말을 통해 가르치시는 스승이었다. 직접 써놓으신 글도 없고, 녹음기도 없었으며, 입으로 한 말들이 문자로 기록되기까지 긴 세월의 시간 경과와, 입으로 말한 아람어를 그리스어 문자로 번역한 과정을 고려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권위와 확실성을 가지고 신약성경이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No) 이다. 성경무오설의 주장은 그 초점을 신약성경에만 좁혀보아도 진지한 크리스천이 확신할 만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의 사실들과 문자적 작성의 특정한 사실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는 문서 역시 그 형성 과정에서 서로 의존하는 단계들을 거쳐야 했다. 모든 문학작품이 그렇듯이, 기독교의 문서들도 전달하려는 과거 사건들의 기억은 물론 문서 작성 당시의 활발한 논쟁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종종 현재의 역사가 과거의 기억을 손상시키거나 적당히 변형시키기도 한다.

신약성경의 시간적 틀

첫째로, 신약성경 배경에 있는 시간적 틀(time frame)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의 탄생 시기를 결정하려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원전 8년에서 기원전 4년 기간에 주목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헤롯왕 치하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전통에 의한 것이다. 세속적인 기록에 의하면 헤롯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으니, 예수의 탄생은 그 이전이라야 한다. 헤롯왕이 죽은 해에서 4년 이상을 소급할 이유가 없어서, 기원전 8년에서 기원전 4년이란 기간이 등장한 것이다.

예수가 죽은 날짜를 결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요한복음서에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 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요 8:57) 하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초대교회의 전승(傳承 tradition 전해진 이야기 - 역사주)이 대체로 일치한 견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삼십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누가복음(3:23)에 의하면, 그가 전도활동을 시작할 때 그의 나이 삼십이었다고 한다. 몇 년이나 활동을 하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논의되고 있는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이다. 그러므로 기원후(요즘에는 A.D.와 B.C. 즉 ‘주후’와 ‘주전’

대신에 C.E., 즉 Common Era와 B.C.E., 즉 Before the Common Era.를 많이 사용한다 - 역자주) 27년에서 34년까지의 사이, 대략 기원후 30년쯤이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 위에 그의 삶을 끝낸 종점이 라고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문제를 간단히 하고자, 나는 기원후 30년을 참조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와 갈라디아서가 크리스천이 쓴 최초의 문서로 나중에 성경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이 믿는 대로, 만일 이 편지들이 대략 기원후 48년 혹은 49년에 쓰여진 것이라면, 이는 곧 역사적 예수의 삶과 신약성경의 최초의 기록 사이에는 무려 18년 내지 19년의 세월이 경과했음을 뜻한다.

바울이 쓴 최후의 문서인 아마도 골로새서가 쓰여진 것은 대략 기원후 62년이다.²⁾ 바울은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바울이 죽었을 땐 아직 복음서는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고, 바울의 편지들도 단지 기독교의 존경받는 지도자의 귀한 편지들 이상이 아니었다. 이들 서신들은 바울 생존 당시에는 성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바울은 너무도 논쟁을 일으키기 쉬운 사람이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기만 해도, 바울이 베드로나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말들이 오류(誤謬)가 없기는커녕 “성경적”이라고 받아 들여졌을 리가 없다. 바울이 죽은 지 20년 내지 25년 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에는 여전히 이 긴장 관계가 가득 실려 있다.

바울과 그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어긋난, 풀 수 없는 간격이 있다. 바울은 자기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사도직(司徒職)을 주장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달이 차기 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다른 제자들보다 늦게 최후로 경험한 것을 빼놓고는, 자기에게 나타난 부활의 현현(顯現 Easter appearance)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 현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기록한 바로는, 바울의 회심(回心)은 부활 현현 경험 때문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 위에서 겪은 환상(vision) 때문이었다. 바울의 세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사도행전이 주장하는 아나니아에 대하여 바울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마스쿠스 도상 경험을 정말 바울이 직접 인정하였겠는지, 아니면 누가의 기록자로서의 변증적인 필요에 의한 것인지 의심이 간다. 최소한 성경의 독자로서는 이런 갈등에 부딪쳐 그 가능성의 무게를 이리저리 가늠해보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이 성경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것이 2세기에 와서나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성경의 다른 어느 기록보다도 먼저 쓰여진 것으로 여기면, 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복음서가 바울의 말들을 윤색(潤色)하여 바울의 본래 의도를 얼마나 왜곡하였는가 놀라게 한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의 초자연적인 출생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음을 주목하였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롬 1:3-4)라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부활을 언급할 때는 압도적으로 수동태로 “일으켜지셨다”(was raised)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가 본 부활의 형상은 이 땅의 삶으로 회생(回生)함이라기보다는 하늘 위로 들려 올려지는 것이다. 바울은 심지어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전 15:50 - 역자주)고까지 말하니, 부활은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육체적 사건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울의 회심(回心) 연대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빨라도 1년 후요, 늦어도 6년 이내이다. 아무도 바울이 예수의 생애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증언한다고는 믿지 않으며, 또 그가 유창하게 말하고 쓸 수 있었던 그리스어로 서신을 썼지만, 그가 나중에 성경으로

된 문서를 쓴 첫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바로 이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선의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대하여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들을 상당히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바울은 자기가 직접 보거나 듣고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남의 말을 들었거나 혹은 첫 부활절 사건 이후 기간 동안에 경험한 것들에 대하여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바울 서신에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러므로 예수 자신과 예수에 대한 기록 사이의 시간 경과는 상당히 벌어지게 된다.

마가복음서가 가장 오래된 복음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보통 기원후 65년에서 75년 사이로 본다. 이는 이 역사적 예수의 생애가 끝나고도 35년 내지 45년이 경과한 후에야 첫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그의 생애에 대하여 단지 일부분만 기록하였는데, 그것들이 크리스천들의 성경적 전통을 형성하고 말았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지나서 다른 복음서들로 옮겨 가보면, 역사적 예수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마태복음서는 아마도 80년대 중반에 안티옥에서 기록된 것 같다. 누가복음서는 같은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과 함께 가이사랴에 살았던 한 전도자에 의하여 83년과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요한복음서의 연대에 대하여는 신약성경의 다른 어느 책에 대해서보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동의하기로는 그 마지막 형태로 4번째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세기의 전환점(100년 전후 - 역자주) 근방이었을 것이다. 이는 곧 예수의 생애와 직접 하신 말씀과 그것들이 문서로 기록되기까지엔 적어도 35년에서 많게는 70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우리가 참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더하여 이 35년 내지 70년이란 세월의 경과를 성경 문자주의에 대하여 넘어갈 수 없는 곤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복음서 기자들과 그들의 스타일 및 청중들

두 번째 문제로 문자주의 견해에 대하여 제기하는 질문은, 복음서들이 그들 저자들의 상이한 관점과 능력을 반영하고 있고, 또 각자가 서로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썼음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각 복음서의 메시지는 이들 두 개의 관점(즉, 저자와 대상 - 역자주)에 의하여 극적으로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마가는 매우 서툰 그리스어를 구사하였는데, 그의 문법 구성은 자주 혼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동떨어진 분사(dangling participle)로 문장을 끝내기도 한다.

누가는, 그와 반대로, 그리스어를 능숙히 구사하고 있다. 4세기에 성경을 라틴어(Latin Vulgate)로 번역한 제롬(Jerome)은 제3 복음서의 저자를 두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가장 세련된 그리스어를 구사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누가 마가의 형편없는 문법을 고쳐놓은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놀랄 일이 아니다.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가는 “그녀의 온 생활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 전부”(everything she had her whole living, 막 12:44)라고 다소 거추장스런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아마도 마가의 그 번거로운 문장에 질려서 자기 책에서는 다시 편집하여 “그녀가 가진 삶의 모든 것”(all the living that she had, 눅 21:4)이라고 썼다. (이 비교는 영어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분명치 않고, 그리스어 본문을 보아야 명백히 드러난다 - 역자주). 마가가 한 이야기에서 시작한 문장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and a great multitude from Galilee followed; also from Judea and Jerusalem and Idumea

and from beyond the Jordan and from about Tyre and Sidon, 막 3:7-8, 한국어는 공동 번역)인데, 누가는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책에서는 고쳐 쓰기를,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and a great multitude of people from all Judea and Jerusalem and the seacoast of Tyre and Sidon who came to hear him. 눅 6:17)라고 했다. 마치 누가는 대학 교수가 1학년 학생의 논문을 채점하듯이 했다. 때로는 그로서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마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려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의 주요 대상이었기에, 그런 거룩한 전통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라고 쓴 것을 모두 보다 받아들이기 쉬운 “하늘나라”(the Kingdom of Heaven)라고 고쳤다.

누가는 그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주로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썼기에,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모두 빼어버렸다. 누가복음서에는 셈족의 언어인 “보아너게”(Boanerges)나 “이스카리오투”(Iscaariot)란 단어를 발견할 수 없다(그러나 ‘이스카리오투 유다’란 단어가 두 차례, 눅 6:16, 22:3에 있다. 스폹 감독이 간과한 것 같다. - 역자주). “보아너게”란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붙인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의 아람어이고, “이스카리오투”는 어떤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유대의 지방이름 케리오투(Kerioth)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배반자의 이름에 붙여버린 것으로 여겨진다. 셈족의 언어인 “아바”(Abba, father, 아버지)나, “호산나”(Hosannah, We pray) 등도 누가복음서에는 없다. 누가복음서에서 “랍비”(rabbi)는 “선생님”(master)으로, “사탄”(Satan)은 마귀“(devil)로 대체되어 버렸다. 다시 한번 거듭하거니와, 마태나 누가도 마가를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마태나 누가 어떻게 마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다. 마태는 마가복음의 661절 가운데 600절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는데, 그는 마가의 기본적인 문장구조를 그대로 채택하되 약간 첨가 혹은 수정하여 마가복음을 증보하였다. 다른 한편, 누가는 마가 재료의 약 절반 정도만 사용하였는데, 마가 자료에 있는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비슷한 에피소드가 다른 자료에서 발견되면, 그는 항상 다른 자료를 선호했던 것 같다. 그가 마가 자료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큼직한 부분을 통째로 사용하되 자기의 이야기에 첨가하는 수정부분으로 삽입하는 정도였다. 더군다나, 마태와 누가는 모두 그 이전에는 문서형태로 존재하지 않던 상당히 많은 재료를 인용하여 문서화시켰는데, 최소한 그것들은 그 이전에는 후대에 전해질 수 있는 기록된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복음서들 가운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

세 번째로, 문자주의가 곤란한 것은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복음서 기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성전정화(聖殿淨化) 사건은 요한복음의 기록(2:13-17)대로 예수의 선교 초기에 일어났을까, 아니면 마태(21:12-13)와 마가(11:15-19)와 누가(19:45-48)가 기록한 대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을까?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누가(5:4-7)의 기록대로 예수의 초기 갈릴리 선교 시절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요한(21:4-8)이 말하는 대로 부활 이후 사건이었을까? 예수의 공생애는 공관복음서들(共觀福音書: 마태, 마가, 누가 - 역자주)이 주장하는 대로 마지막 1년이었나, 아니면 요한복음의 주장대로 3년 걸렸던 것인가? 예수의 최후의 만찬은 마태(26:17 이하)나, 마가(14:12 이하)나, 누가(22:17 이하)가 주장하는 대로 유월절 식사였나, 아니면 요한복음이 믿는 대로(13:1-16) 유월절을 준비하는 식사였나?

이것들은 성경에서 상호 모순되는 몇 가지 본문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가 성경은 문자 그대로 잘못이 없다는 접근방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난제요, 어떤 합리화도 거부하는 것들이다.

성경 원자료에 대한 현대 학문의 발견

일단 문자주의를 제쳐놓고 보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열리기 시작한다. 예수 시대와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 사이의 35년 내지 70년간의 기간을 탐구하면 놀라운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지난 150년간 학자들은 실제로, 이 캄캄한 침묵의 베일에 싸인 구전(口傳)의 역사 시대에서 새로운 밝은 통찰력을 얻어냈다. 무엇보다도 이 통찰력이 알아낸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바닥에 숨어있던 고대의 문서 Q자료를 되찾아낸 것이다.

편의상 내가 한 작품으로 보는 이 Q 자료(Quelle, 독일어로 자료, 즉 Source를 의미함), 즉 잃어버렸던 Q 자료는 성경의 양식 비평(form-criticism)이란 학문의 탄생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양식 비평”이라고 말할 때, 나는 복음서 기자가 마지막 문서로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성 단위들을 구분해내려는 성서신학의 분야를 의미한다.) 학자들은 우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된 것을 알아내었다. 그 두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부분을 삭제하여 버리고 나자, 놀라운 현상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 즉, 그 마태와 누가 두 복음서에는, 공통점이었던 마가복음 부분 말고도, 아직도 약 200여 절이나 매우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 구절들은 대체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었다. 때로는 그 유사점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예컨대, 주기도문에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을 누가에서는 단지 “아버지”라고 기록했다. 마태복음의 “복 있는 자들”(the Beatitudes)의 가르침을 누가복음의 “복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말씀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5: 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5:6)로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6:20),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6:21)로 되어 있다. 더구나,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이 설교를 산꼭대기에서 말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계셨다”(6:17)고 말한 뒤에야 비로소 이들 말씀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재료(material)가 서로 똑같은 것들도 있는데, 예수의 시험(마 4:1-11; 눅 4:1-13),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말씀(마 23:13-36; 눅 11:42-45),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마 4:43-48; 눅 6:27, 32-35) 등이 그렇다.

마태나 누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기에, 결국 남은 결론은 그들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의 공통 자료(a common written source)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일단 이 자료가 밝혀지자, 엄청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네덜란드의 가톨릭 신학자 에드워드 쉴레벡스(Edward Schillebeeckx)는 Q 자료의 편집 3단계를 제안하였는데, 즉 아람어 단계, 유대-크리스천 단계, 그리고 이방인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수의 어떤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기원후 50년대 초반(50-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으며, 이는 역사적 예수가 죽은 지 20년 내지 25년 사이의 기록들이다.³⁾

마태와 누가에서 이들 공통 Q 자료를 삭제하고 남은 상당 부분은 각 복음서의 특수재료들이다. 마태에만 있는 이 특수재료를 M자료, 누가에만 있는 특수재료를 L자료라고 한다. M이나 L이 한 가지 공통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심지어는 기록된 자료로만 전해왔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

도 그것들은 두 복음서 내에 각각 일련의 기록된 형태 혹은 구전의 형태로 전해진 특수재료일 것이다. 이 재료들이 각 복음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일단 이들 특수 재료들이 구분된 후에도, 다른 매우 흥미 있는 견해가 나타났다. 누가복음의 특수재료인 L과 요한복음 사이에 우연치고는 너무도 비슷한 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L과 요한복음은 모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사도를 가지고 있으며(눅 6:16; 요 14:22),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배신을 하게 했다고, 그리하여 유다에게 보다 적은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눅 22:3; 요 13:2), 예수를 체포할 당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에피소드(눅 22:50; 요 18:10),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의 유죄를 세 차례나 거부하는 기록(눅 23:4, 14, 20; 요 19:4, 6, 12) 등이다. 둘 다 모두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 사이의 가까운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누가든 요한이든 이 친근한 관계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은 없다. 요한복음 기자가 누가의 자료에 의존하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누가의 특수재료(L)의 주요부분은 요한에게도 잘 알려진 전승재료라는 점만 지적해 둔다.

Q 자료의 발견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애와 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의 어슴프레한 시기를 35년-70년에서 25년-70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복음서들을 공부해보면 각 복음서가 단 한 가지 연속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으니, 곧 우리를 종려주일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이끄는 예수의 수난 이야기(passion story)이다. 이 수난 이야기는 각 복음서의 중심에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각 주요 도시 중심에서 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기록된 문서로 존재했으리라고 추정할 만하다.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거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마가는 로마, 마태는 안티옥, 누가는 가이사랴, 요한은 에베소이다. 각 수난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은 각 지역 교회가 서로 다른 것을 반영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각 수난 이야기의 어느 부분은 상당히 일찍부터 아마도 40년대부터 상당히 고정된 형태로 기록되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확실치 않은 추론일 뿐이라, 더 이상 가까이 갈 수는 없다.

복음서 배경의 근원자료들에 대한 이런 분석은 너무도 피상적이며, 학자들이 평생을 바치는 과제들을 곁핍기로 슬쩍슬쩍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들을 수 있었던 어떤 정보보다도 더 많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그 가능성이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말이다. 명백한 것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 있으니, 즉 기독교 전승의 제일차적 자료들을 문자 그대로 시시콜콜 다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가 이들 재료들을 정직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근본주의자들이건, 진보주의자들이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감히 못해보는 것, 곧 성경적 진리의 의미 속으로 깊이 여행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구전(口傳)에서 기록된 정경(正經)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 볼 수 있다. 즉, 기록된 자료에서 그보다 앞선 구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방법이다. 신약성경에 있는 자료들은 기록된 자료들이고, 그러므로 이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고정된 형태로 된 것들이다. 어떤 것은 아마도 예수의 생애로부터 10여 년 후에 쓰여진 것(수난 이야기), 아마도 20여 년 후에 쓰여진 것(Q 자료), 혹은 35년 후에서 45년 후에 쓰여진 것(마가 이야기), 그리고 한 70년 후에 쓰여진 요한의 재료들이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이 통합시킨 자료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이들 자료

들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거나, 혹은 순회 설교자들이 여러 회중들에게 말해준 이른바 구전(口傳)의 형태로만 존재했던 역사상의 시기를 보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던 자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른바 단락(pericope)이라고 불리는 조각들이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생전의 어떤 시간과 장소에 연관되어 있기보다는, 고립된 소품들로서 각각 독립적인 광휘를 발하면서 떠돌던 것들이었다. 이들 여러 단락들은 주님의 말씀을 보전하도록 고안된 이른바 “성명 이야기들”(Pronouncement stories)로 존재한다. 즉, 신유(神癒)를 포함한 자연사건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들, 비유(比喩)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고립된 예수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이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알고 있던 유일한 예수 생애의 전기적(傳記的)인 구조는 그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끝냈다는 것이니,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의 여행이다. 그러므로 이들 복음서들은 갈릴리 장면, 여행 장면, 그리고 끝으로 예루살렘 장면들로 나눌 수 있다. 예수 생애의 여러 가지 산발적인 에피소드(삽화)들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단 장식품들처럼 이 기본 틀에 여기 저기 매달려 있다.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다음 해에 장식을 할 때는 그 장식품들을 전혀 다른 곳에 매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장식품들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니까, 그 나무는 아직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메시지는 여전히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형식으로 나중에 추가된 내용들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기 저기 자유롭게 떠돌고 있었다. 어떤 시점에 와서, 이들이 아람어(Aramaic)에서 그리스어(Greek)로 번역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빠져 버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구전의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잊혀져 버렸다. 이렇게 길가에 버려진 보석들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 불가피하게도, 세월을 따라 이 구전의 내용들이 살아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겪는 압력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될 필요를 위하여 조작되고 변모되었다. 저자들은 구전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확실히 그들의 청중들의 감성과 필요에 부응하도록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갔다.

마침내 기록된 복음서의 형태가 모양을 갖추었다. 오늘날 성경에 수록된 네 개의 복음서 말고도 더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베드로 복음서(The Gospel of Peter), 야고보 복음서(The Gospel of James), 도마 복음서(The Gospel of Thomas), 히브리 복음서(The Gospel of Hebrews) 등, 그리고 몇 개 더 있다. 그러나 제2 세기에 와서, 마르시온(Marcion)이라는 사람의 압박에 대응하고자, 한 무리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장차 거룩한 경전이라고 알려질 성경에 어떤 책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 그들은 당시 나돌던 복음서들 가운데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뽑았고,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많은 책들 가운데서는 사도행전을 선택하였으며, 바울의 서신들(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과, 그들은 바울이 쓴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틀림없이 바울의 저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에베소서, 히브리서, 디모데서, 디도서(아마도 70-90년 사이에 쓰여진) 같은 것들이 뽑혔다. 그리고는 일련의 편지들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유다서들이 첨가되었다(아마도 이들 중 어느 것도 진짜 그들이 쓴 것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거룩한 이야기를 마감하기 위하여, 기독교연대로 100년경에 일어난 박해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천국인 예루살렘 도성을 환상으로 그려낸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신약성경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초대 교회의 삶에는 권위적인 것이 되었다. 실제로 그것은 후일 세월이 지나면 교회를 당황하게 만들 어떤 내용들을 고착시켜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독교의 시작을 설명하는 문서가 그

렇게 기록되어 생겨났다.

옛 시대의 가정(假定)들을 포함한 이 오래된 책들이 오늘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나는 성경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 책의 진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진리를 해방시켜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목표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내게는 기쁨과 통찰력을 주었으며, 나로 하여금 이 성경에 매혹되게 만들었다. 아직도 소중히 여길 것들이 많이 남았으니, 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

제12장

제4 복음서: 태초에--“나는... 이다.”

요한(John)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4 복음서는 많은 점에서 성경의 가장 심오한 책이다. 여러 성서학자들은 이 책을 탐구하는 것으로 자기의 학문적 생애의 최고 영예를 삼았다. 여러 구절들이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도 더 많이 인용되었다. 장례 예배에서도 자주 읽혀졌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알려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요 14:1-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를지라도 매우 친숙하게 여긴다.

요한복음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요 3:16). 그것은 또한 별난 대답이 나오는 퀴즈의 해답을 제시하는데, 즉,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은? 그 대답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Jesus wept. 요 11:35, 그리스어로는 3단어, 영어로는 2단어 - 역자주)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야기 속에 들어 있다. 요한복음의 서문(요 1:1-18 역자주)은 한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Mass)가 끝날 때마다 드리는 축도로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영국의 앵글로-가톨릭 운동에서 성공회 예배의 축도로도 사용되었기에, 그런 예배 의식 전통에 꼭 친숙하게 된 것이다.

성경 문자주의자들에게도 제4 복음서는 가장 애용되는 책이다.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옹호하는 구절들이 이 책의 본문에는 도처에 있다. 즉 세례자 요한은 제1장에서(34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라고 선포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제4장에서(42절) 예수를 “세상의 구주

"(The Savior of the world)라고 하였으며, 제자들은 제6장에서(69절)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분”(The Holy One of God)이라고 불렀다. 예수 자신도 선언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I and the Father are one)라고 하였고(요 10:30),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I am the Son of God)라고도 하였다(요 10:36). 요한복음서 이야기에서는 예수의 인성(the humanity of Jesus)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즉 요한복음서에는 광야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겐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친 고통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십자가 위에서 소리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가 없다.

문자주의자들에 대한 요한복음의 도전

그러나 이 책은 근본주의자들에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예수의 말씀은 정교한 담론 형식(discourses)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긴 신학적 발전을 거쳤음이 분명하여 역사적 예수의 입술에서 나온 말 그대로를 문자화한 것일 리가 없다. 예를 들면, 이른바 대 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17장) 것에서, 예수가 말했다고 전해진,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3절 - 역자주)라는 구절이 있다. 만일 나사렛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제3인칭(그리스어 문장의 단어 격변화를 보아야 확실함 - 역자주)을 쓰고, 또 1세기 후반부나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학적 용어(예수 그리스도 - 역자주)를 사용한다면 참으로 이상스럽지 않은가?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말함 - 역자주) 전승에서는 예수가 그의 신적인 근원이나 비밀스러운 정체를 떠들고 다니려는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한다. 그러나 제4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의 정체를 지붕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들도록 소리치고 있는 격이다. 또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의 공생애가 1년 정도 지속된 것으로 제의하여, 그 이야기에서는 예수가 그의 생애의 절정에서 거룩한 주일(유월절을 중심한 주간 - 역자주)과 부활절에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세 번이나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하여 예수의 공생애는 2년 내지 3년 지속된 것을 의미하며, 또 예수는 몇 차례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주목한 대로, 성전정화(聖殿淨化 cleansing of the temple) 사건은 요한복음서에는 예수 공생애의 끝부분이 아니라 시작부분에 실려있어서(요 2:13 이하), 공관복음서들의 전승과는 정반대다. 문자주의자들은 성전정화 사건이 두 차례 있었다고 제안하고 싶겠지만, 그건 진정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심한 억지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는지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차이가 난다. 요한에게는 그건 유월절 저녁에 먹은 준비 식사다. 흥미로운 것은 최후의 만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엔 놀라울 정도로 언급이 없다(요 13장 첫 부분을 참조하라--역자주). 내가 전에 쓴 책(*This Hebrew Lord*, 1987년 발간 - 역자주)¹⁾에서 언급하였지만, 예수가 나사로를 되살린 기록은(요 11:43), 이 요한 기사가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눅 16:20 이하)를 자기 나름으로 명상한 작품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부활을 다루는 장으로 미루어 두겠다.

다른 복음서들과의 차이점을 제쳐두고라도, 제4 복음서는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가 한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명백히 예수가 뜻하는 바를 놓치는 것이다.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근본주의자의 정신상태를 가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요 3:3)고 하자, 니고데모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요 3:4)라고 묻는다. 간단히 말해서, 이 대답은 요점을 놓친 것이지만, 이게 바로 문자주의를 믿는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문자주의자다. 예수가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으로 답변한다. 예수가 그 대화를 차단하고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 4:10)라고 한다. 여자는 놀라서,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요 4:11)라고 반문한다. 이것이야말로 요한 기자가 본 문자주의자 여인의 참으로 보기 딱할 정도로 단순 소박한 말이다.

글자 그대로 잘 속아넘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세라, 제자들 자신들도 비슷하게 이 소동에 끼어 든다. 예수가 이 둔감한 무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요 4:32)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투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요 4:33)라고 한다. 이런 문자주의적 태도는 군중을 먹이신 기적사건 후에도 지속되는데, 예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그 빵을 우리들에게 늘 주십시오”(요 6:33-34)라고 한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가 계속하여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주장하자, 그가 인간으로 태어난 근본을 알고 있는 그의 비판자들이 대꾸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가?”(요 6:42)라고 한다. 나중에도 이런 문자주의적 태도는 지속되는데, 그의 비판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요 6:52)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가는 곳에 “그들은 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자, 요한의 본문은 유대인 군중들이 묻되, “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 사이에 흠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을 가르칠 것인가?”(요 7:33 이하)라고 한다. 나중에 여전히 궁금한 태도로 묻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한다(요 8:22).

성경 본문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이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례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요 1:6 이하). 이 요한 기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하게 한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요 1:29).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가정하여야만 세례자 요한의 이런 통찰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 복음서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종교적 독선의 더욱 어두운 측면을 강화하게 된다. 즉 요한복음서에서 “유대인”(the Jews)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 악마(evil)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요한복음서의 예수는 유대인들이 “아래에서 왔다”고 말한다(요 8:23). 또 “너희(유대인들)는 너희의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요 8:44)라고 예수는 주장한다. 예수가 유대인을 “사탄의 자식들”(children of Satan)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신적인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데도,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동안 종교적으로 편협한 신앙을 정당화하도록 이용되었다. 만일 예수 자신이 유대인을 경멸한다면, 하물며 그의 제자들이야 가서 똑같이 하는데 무

슨 허락이 필요하겠는가? 역사의 예수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였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묘사한 예수의 모습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선권을 거듭 거듭 주장하고 확신하는 마태복음서에서 묘사한 예수의 모습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물론 조화되지 않는다. 기독교 전승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로 하여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 5:44)라고 말하게 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는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택인가? 만일 문자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졸라대는 한,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아니면 특별히 요한복음만 내어 버려야 한다는 뜻인가? 이것이 근본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할 때,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모르거나 혹은 탐구해볼 수 없을 때 대두된 문제점이다.

요한복음서의 정수(精髓)를 이해하기

요한복음은 너무도 심오하고, 시적이며, 능숙한 솜씨로 만들어졌고, 유대인의 과거에서 나온 형상들과 개념들에 의존하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필생의 연구를 바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진리에만 천박하게 집착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왜곡되고, 진부하게 되어, 심지어는 거의 한심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내가 확신하는 바는, 제4 복음서 배경에는 보다 오래된 역사적 전승이 있었을 것이다. 이 원시 전승(primitive tradition)은 내가 믿기로는 최소한 “예수가 사랑한 그 제자”(the disciple whom Jesus loved)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요한 세베대(John Zebede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한다. 또한 교회가 예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이 복음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본질을 더 잘 포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며, 그러기에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그 단어들과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는 아니라 해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문자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4 복음서는 신약성경의 지성소(至聖所)이며 기독교 문서의 정상(頂上)으로서 내 앞에 산봉우리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문자주의의 왜곡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 정수(精髓)를 그려내는 것이 내가 이 장을 쓰는 야심찬 목표다.

다른 부분을 해석하면서, 내가 이 책에서 이미 주목한 대로, 모든 성경 공부의 출발점은 성경이야기가 본래 쓰여지게 된 상황과 맥락(脈絡 Context)이다. 아무도 진공 속에서 쓰고, 생각하고, 교신(communicate) 하지는 않는다. 모든 기록된 문서는 대화의 단지 절반일 뿐이다. 우리가 대화의 다른 절반에 대하여 어떤 의미든 캐내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의 섬세한 차이(nuance), 강조점들, 혹은 많은 경우엔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만일 누가 자신감을 가지고 믿기를, 문자 그대로의 실재, 객관적이고도 불변하는 실재가 있어서, 성경의 언어들엔 보통 골동품들이 대체로 갖는 왜곡이나 변형 따위는 없다고 한다면, 그가 본문을 오해할 확률은 100퍼센트에 가깝다.

수 년 전에 나는 텔아비브 공항에서 한 모슬렘 어린이를 만난 것을 기억한다. 나는 감독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성직자용 칼라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지닌 그 십자가 한 가운데는 히브리어 글씨로 YHWH(야훼 - 역자주)라고 써 있었다. 흔히 내가 “바로 이 분 히브리 주님”(This Hebrew Lord)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예수의 유대인 되심(Jewishness)을 강조하려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직접 고안했던 것이다. 그 어린이는 이들 글씨에 호기심이 발동하였는지, 왜 내 십자가에

히브리 글씨를 써넣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는 유대인이었음을, 그리고 유대교가 세계에 베푼 선물이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한 거야”라고 말했다. 그 어린 소녀는 어리둥절해 하면서, “예수가 유대인이었어요?”하고 다시 물었다. 내가, “그렇단다. 그래서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니까, 그 소녀는 답하기를, “아니요. 난 예수는 가톨릭인 줄 알았거든요!”라고 말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매우 편협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슬렘 어린이로서는 “유대인” 됨의 의미는 그 어린이의 세계에서 통하는 것과는 자못 다른 것을 뜻함을 알 리가 없다. 현대의 편견들은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로 거꾸로 거슬러가서 읽어내려고 한다. 원래 고대의 출처는 잊혀져 버렸다. 성경에 대한 무지도 또한 역사적 기억이나 역사적 상황을 잃어버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진리가 요한복음 공부에서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도 아마 없을 것이다.

1세기의 사람들이 겪은 예수 경험은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 그 경험은 분석되고, 이해되고, 전달되어야 했다. 그 시작은 유대인들의 경험이었다. 그것들은 유대인 세계에서 일어났다. 첫 신봉자들은 유대인들이었으니, 불가피하게도 그 수단과, 개념들과,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단어들도 유대인 세계가 제공한 것들이었다. 가장 원시적인 기독교 신조라고 할 “예수는 주님이시다”(Jesus is the Lord)라는 고백을 했던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가를 이해할 단서를 찾기 위해 유대인들의 성경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 원래의 고백은 설명되었고, 방어되었으며, 그리고 모든 전통과 마찬가지로 신조 신학이 세월을 따라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전승이 수정되고, 변경되고, 개작되고, 성장하였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것은 번역되었고, 그런 과정의 각 단계에서 문자주의가 타협을 하였다.

마침내 이 전승이 문자로 기록되게 되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째, 기록된 말들은 원래 저자가 의심한 것 이상으로 최후 기록자의 역사적 시대를 반영하였다. 둘째, 기록된 문서는 성경의 말들을 역사의 그 시점에서 동결(凍結)시켜 버려서, 세계가 점점 새로운 현안들로 움직여 갈수록, 그 말들은 점점 부서지기 쉽게 되어버렸다. 거룩한 이야기를 주석하는 현대인은 문제의 역사적 언어들을 탐구하여 그 배경의 경험을 찾아내야 하며, 그리고 그 경험들을 시간 안에서 끌어내어 그 진리가 우리들 세대에다 다시 한번 알려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요한복음은 기독교 전통에서 캐널 영적인 발굴을 위하여서는 가장 풍요한 광산(the richest mine for spiritual excavation)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은 성경의 기독교 작품으로서는 가장 덜 문자주의적이고, 가장 덜 객관적인 것이다. 나는 제4 복음서(요한복음)에서 예수에게 돌린 말씀 중에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단어를 단 한 경우도 발견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복음서 기자가 예수와 그의 궁극적인 의미를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 더 잘 이해하였다고 믿는다. 그런 도발적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나는 나의 독자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 보자고 청하는 바이다.

요한복음서의 저자 문제

예수가 죽고 난 후 요한복음이 기독교 공동체에 나돌기까지는, 약 60 내지 70년의 세월이 경과했다. 이 복음서가 반영한 전통은 모든 전통이 그렇듯이 예수의 생애가 준 충격적인 감화(感

화)였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세베대(John Zebedee)라는 어부가 있었다. 그의 형인 야고보와 함께 요한은 고기 잡는 그물과 아버지를 뒤에 남긴 채 스승을 따라 나섰다. 공관복음서 이야기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데, 아마도 둘 중에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은 동생임을 뜻하는 것이리라(마 4:21; 10:2; 막 1:19; 눅 5:10). 또한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의 이름은 제4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사촌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마리아와 자매간일 것이다(요 19:25). 이것이 사실임이 입증된다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달라고 위임한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 내용은 제4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다(요 20:26 이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한 제사장 계열에 연결될 것 같은 것이, 누가복음에 의하면(눅 1:5, 36), 그녀는 엘리사벳과 연관되어 있고, 엘리사벳은 아론(제사장 계열의 원조 - 역자주)의 자손이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조카인 요한이 예수가 잡힌 날 밤에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정원에 안내하였으리라고 설명이 된다(요 18:15, 16).

어쨌거나 공관복음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내부 서클(inner circle)이었기에, 예수의 변화산 사건이나 겿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으나(행 12:2), 요한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음이 바울의 갈라디아 서신에서(49-52년경) “교회의 기둥들”(갈 2:9)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은 요한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였다고 확증하였다(행 3:1; 8:14). 마가복음이 그 배경에 베드로의 권위를 지니고 있어서 마태와 누가로 하여금 공관복음 전통을 형성하게 하였기에, 적어도 같은 정도의 사도적 권위를 지닌 전통이 아니면 감히 여기에 도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4 복음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공관복음서에 도전하였으니, 그 “저자”는 상당한 권위를 지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을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야말로 그런 역할에 맞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요한 세베대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제4 복음의 저자였을까? 오늘날 성서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제4 복음서는 1세기가 끝날 때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요한 세베대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요 21:23).²⁾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요한 세베대가 실제 저자라고 주장하기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거의 결정적이다. 그러나, 요한 세베대의 권위가 이 복음서의 배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전통이 이 사람에게 소급된다는 점에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저자”(Author)란 실제로 글을 쓴 사람(writer)은 아닐지라도, 그의 권위에 책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2세기초의 이레니우스(Irenaeus)는 그의 “이단자에 대한 반론”(Treatise against Heretics)에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주장했다(*Adv. Haer* III, 1:1). 이 전승은 4세기의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Eusebius) 역시 확증하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와 같은 권위자의 글에서 인용했다고 말했다. 135년경 에베소에서 글을 쓴 저스틴(Justin)은 요한이 그 도시에 있었다고 언급하였고, 130년경에 글을 쓴 파피아스(Papias)는 두 사람의 요한, 즉 제자 요한(the disciple John)과 장로 요한(the elder John)을 언급하였는데, 둘 다 나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글을 썼다고 했다. 유세비우스는 심지어 에베소에는 요한의 이름으로 된 무덤이 두 개 있다고(*Church History* III, 39:6) 했고, 디오니시우스(Dionysius)라는 사람이 장로 요한에게 문필 활동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고하면서(*Church History* III, 25:6-16) 요한계시록과 제2, 제3 요한 서신은 이 장로 요한이 썼다고 하였다.

또한 초대교회의 기억에는 에베소에 있는 요한 세베대 주변에 제자들이 몰려들어 이른바 요한 사상 학파라 불려도 좋을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고 종종 언급하였다. 클레멘트는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동반자들에 의하여 위로를 받았다”고 썼다. 4세기 말경에 쓰여진 라틴어 불게이트(Latin Vulgate,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서문에는 요한이 죽기 전 그의 제자들을 에베소에 불러모았다고 쓰여 있다. 역시 제4세기에 쓰여진 라틴어로 된 마르시온주의자들에 대한 반론(Anti-Marcionite)의 서론에는 파피아스가 요한이 부르는 것을 받아 적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언급했다. 제5세기의 작품인 요한행전(The Acts of John)에는 프로코루스(Prochorus)가 밧모 섬에서 요한이 불러주는 것을 기록하여 요한복음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런 모든 암시들이 역사적으로 확실함을 최후에 문서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된 저작들에 공헌하였으리라는 전통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같다. 요한의 이름으로 된 다섯 개의 책(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제1, 2, 3 요한 서신)을 분석해보면, 내용과 가치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문체나 단어 사용의 광범위한 다양성이 있음을 또한 알게 되는데, 이는 아마도 그 책들이 모두 요한 학파의 산물이긴 해도 각각 다른 개인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요한복음서의 주요 저자가 요한 세베대의 제자였던 장로 요한(elder John)이라면, 그는 아마도 에베소의 요한 세베대 둘레에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서 수집하고, 토론하고, 설교하고, 명상하였던 자료들에 의거하여 이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서의 많은 내용이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요한 세베대는 장수를 누렸다는 오래된 전승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가 사도들 가운데서 살아 남은 유일한 인물이었다면, 이 덕택으로 그의 명성, 신분, 그리고 권위가 높여졌으리라는 점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가 예수를 경험한 것들, 또 그가 기억한 예수의 말들은 분명히 제자들과 나누었을 것이고, 이 내용들을 놓고 그들은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제4 복음서에 나타난 예루살렘 주변의 장소나 사건들의 세부적인 정확성으로 보아서, 이 복음서의 초기 전승의 제1차적인 내용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매우 긴 논설체의 설교들과 예수의 입술에 올려서 그 자신에 대한 상당히 발전된 신학적 아이디어를 나타낸 단어들이 있는데, 즉 빛(Light), 성막(Tabernacle), 성전(Temple), 메시아(Messiah), 야훼의 종(Servant of Yahweh), 이스라엘의 왕(King of Israel), 영생의 전수자(Dispenser of Eternal Life) 등, 이들 모두는 오랜 시기를 두고 발전된 과정을 입증하고 있다.

분명히 이 과정 어딘가에 거물급 신학자, 즉 드물게 보는 영적인 깊이를 지닌 천재가 있어서, 이 심오한 이야기를 엮어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지도 스승이었던 존경하는 인물을 예수의 사랑 받는 제자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알아왔던 그분의 삶의 스타일대로 요한 세베대를 묘사할 때, 한 발자국 물러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덤에 먼저 들어가도록 양보하는(요 20:5) 그런 이름 없는 존재로, 즉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인물로 그려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 스승이 직접 눈으로 본 바를 증언했다고 그 내용의 순수성을 강조하였을 것이니, 제4 복음서의 저자는 마치 제2 세대의 사람이 실제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말하듯이, 두 차례나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요 19:35; 21:24)고 주장하고 있다.

요한이 사용한 히브리 성경

모든 초기의 기독교 재료가 그렇듯이, 요한 기자가 사용한 재료도 히브리 성경에 의존하고 있

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쯤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었을 어떤 힌트나 귀한 해석을 찾아서 거듭 거듭 구약성경도 훑어 내어 선택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재료의 모음이 나타났다. 즉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출생지가 된다고 주장한 미가의 예언은, 마태복음에서처럼 예수 탄생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출신지를 놓고 예수에게 도전하는 비판자들의 목소리에 포함되어 있다(요 7:42 이하). 주목할 것은 미가의 언급이 요한에게는 탄생 이야기에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은, 제4 복음서에는 아예 탄생에 관한 자료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요한은 십자가형을 설명할 때 시편 22편을 참조하면서도(요 19:24, 36), 정작 마가와 마태가 예수의 입술에 올렸던 그 시편의 첫 구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 역자주)은 고의로 빼버렸던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요한의 이야기(요 19:18, 37, 38 이하)에는 분명히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사 53:9)가 나온다. 유일하게 인간적인 부르짖음 “내가 목마르다”(요 19:28)는 말은 시편 69:21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나 요한의 재료를 심각하게 변색시킨 것으로서, 히브리의 거룩한 문서를 다소 분명치 않게 언급한 것들도 있다. 족장들에 대한 메아리가 본문 여기 저기에서 들려온다(아브라함-8:31 이하; 이삭-3:16; 야곱-4:5 이하). 모세와 출애굽은, 마태에서처럼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자신이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빵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다. 요한은 말하기를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요 1:17)고 주장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주장하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요 5:46)라고 했다. 요한의 능숙한 펜 아래에서는, 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높이 세운 청동뱀(민 21:9)의 모형이, 장차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높이 매어 달릴 예수의 모습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되었다(요 3:14 - 역자주). 신명기에서 모세의 연설과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논술에 유사점들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둘 다 전통적인 자료들을 택하여 이를 다시 고쳐서 논술의 구성에 맞게 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현대의 독자가 이런 참조점들에 익숙치 않거나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면 성경 이야기의 많은 섬세한 의미 차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저자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의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특한 방식을 발견하였기에, 그의 작품이 다른 복음서 전통들과는 확연히 대조되고 구별되게 만들었다. 형식과 스타일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후기 유대교의 지혜문학에서 왔는데, 말하자면 성경의 정경인 잠언, 외경인 집회서(Ecclesiasticus, Sirach), 솔로몬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 바룩(Baruch), 에녹(Book of Enoch) 등을 뜻한다. 지혜문학의 전통에서 우리는 그리스 철학의 사고형식이 유대교와 유대 성경에 들어간 첫 위치를 발견한다. 여성적인 지혜(Lady Wisdom, 히브리어에서 지혜는 언제나 여성)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잠 8:22, 23; 시락 24:9; 지혜 6:22).³⁾ 지혜는 신성한 방출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이런 개념들이 유비(analogy)에 의한 설명을 제공하여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를 “말씀”(the Word)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전능자의 영광이 넘쳐흘러 나온 것이었다(지혜 7:25). 제4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지녔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였다(요 1:14; 8:50; 11:4; 17:5, 22, 24).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의 찬란한 광채라, 사람의 삶을 비추는 어떤 자연 광선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었다(지혜 7:26). 요한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가 이 세상과 모든 인간들의 빛이었다.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가족들 가운데 거하였다(잠 8:31; 시락 24:8; 바룩 31:37; 지혜 9:10). 요한은 예수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의 아들(人子: Son of Man)로 그려

내었다(요 1:14; 3:31; 6:38; 16:28). 지혜가 하늘로 궁극적 귀환을 하는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늘 보좌로 올려지는 것을 이해하는 데 좋은 유사점을 주었는데, 요한은 이것을 예수의 영광(glorification) 또는 승천(ascension)이라고 불렀다(요 17:1, 22, 24; 20:17). 지혜의 기능은 위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지혜 9:16-18). 요한복음 여러 구절들에서 예수의 기능은 신적인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었다(요 17:6 이하). 지혜는 길거리를 헤매면서 인간의 삶 속에, 특히 사람의 가슴속에 깃들 곳을 찾는다(잠 1:20-21; 8:1-4; 지혜 6:16). 그래서 요한이 그려내기는, 예수도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찾아 홀로 헤매었고(요 5:14; 9:36), 공공 장소에서 그의 메시지를 외쳤다(요 7:28, 37; 12:44). 지혜는 그녀의 자식들(children)이라고 부르는 제자들을 가르쳤다(잠 8:32-33; 시락 4:11; 6:18). 요한은 예수의 제자들을 그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요 13:33; 21:5).

요한의 그리스도처럼, 지혜는 제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단련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한다(시락 6:20-26; 잠 8:17; 지혜 6:17, 18). 그런 맥락에서는, 요한복음의 베드로가 매우 인상적인 인물인데, 그는 시험받고 실패한 뒤에 세 차례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 16, 17)는 질문으로 다시 도전을 받았다. 또한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일러 주기를,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뒤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요 15:15; 16:27). 지혜를 만난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구하여 찾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나중에 마음을 고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다(잠 8:17; 시락 6:27; 지혜 6:12).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도 같은 응답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해야 하는데, 일단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그들이 예수가 있는 곳에 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요 7:34; 8:21; 13:33).

끝으로, 지혜의 능력은 모든 것을 관통하고 침투하는 데 있다.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의 숨결이요, 거룩한 영광의 순수한 넘쳐흐름이다(지혜 7:24, 25). 마찬가지로 요한의 예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며(요 14:23; 15:10; 17:8),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었다(요 20:22). 요한은 구약성경에서 외경이 말하는 것 같은 지혜를 발견하였고, 이런 근본적인 유추에 의하여 그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했다. 마태에 대한 모세의 관계, 누가에 대한 엘리야의 관계, 그리고 요한에 대한 지혜의 관계는 모두 같은데, 이야말로 중대한 해석학적 실마리다. 내가 믿기로는, 요한 학파 내에서 지혜와 말씀을 연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이 쓰여지기 훨씬 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혜와 말씀을 연결하는 이런 유추가 첫 공동체의 명상과 기도에 극적인 색깔을 더하여,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그 영향이 증대되었다.

무엇이 공동체 안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 내부에서 명상적인 삶의 풍요한 내용을 그 모든 심오함과 함께 전환시켜서 복음서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도록 하였을까? 무엇이 그 이야기 내용 안에서 유대인(the Jews)이라고 부른 무리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복음서 기자로 하여금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하여, 유대 전통의 두 가지 주요한 면모를 사용하여,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지나친 주장을 하게 하였을까? 또한 그런 이야기는 요한복음 이야기를 개방하고, 조명하며, 그리고 초점에 집중하게 한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

예수의 생애와 제4 복음서가 쓰여질 때까지의 세월 동안, 기독교 운동은 성공적으로 출발하였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파되었다. 기

원후 50-60년간에 기독교는 주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이방인 세계에 파고들었다. 그러나 바울이 64년에 죽고 나서도, 70년에 로마 군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대체로 유대인들의 운동이었다. 유대 중심이 상실된 것은 기독교 종교의 유대적 중심 성격에 일대타격을 가한 것이다. 예루살렘의 근거가 없어지자, 이제는 유대 전통에 신실하였던 딸 종교(daughter religion)를 지탱해주던 이전의 유대적 성격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이방인 기독교(gentile Christianity)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 당시 역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긴장관계가 유대인 기독교도(Jewish Christian)와 이방인 기독교도(gentile Christian)도 분열시켰다.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그들의 신앙 전통이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들 또한 자신들과 엄격한 정통 유대 종교 신봉자들 사이를 갈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방인 기독교도들 사이에 종종 들려오는, 이른바 예루살렘의 함락은 예수를 거부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벌이라는 주장으로 이런 긴장들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고도의 불안과 긴장의 시기에는, 종교적 제도가 늘 그 초점을 좁혀가서 마침내 보다 경직된 정통주의(orthodox)로 굳어진다. 이는 살아남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이런 일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또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근본주의의 부흥은, 이란의 모슬렘(Moslem Iran)이나 미국의 크리스천(Christian America)을--개신교와 가톨릭 모두--포함하여, 이 원리를 잘 예증하는 터이다. 1세기 중반에 유대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로마 장군 티투스 휘하의 병력에 의하여 성전은 파괴되어 겨우 통곡의 벽(Wailing Wall)만 남기고 땅바닥에 무너져 버렸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희생제사도 유대교의 정통성 수호자들도 다 없어져 버렸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거와 연대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율법에 헌신하는 것이 전부였다. 율법만이 흠어진 유대인들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로 묶었다. 그들 종교 역사상 이런 비극적인 순간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생겨난 반체제적 이단자들로 간주되었다. 이런 감정이 격하게 자라나면서, 80년대를 통하여 정통 유대교인들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 밖으로 몰아내려고 산발적이긴 하나 점점 강도 높은 적대적인 시도를 하였다. 이렇게 상당한 후기에도 흠어져 사는 유대인 공동체들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아직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회당에서 올리는 기도문들 중 하나는 다시 만들어졌다. 그것은 쉘모네 에스레(Shemoneh Esreh)라고 불렀는데 일련의 축복과 저주로 된 것이다. 새롭게 기도문을 고치면서(우리는 기도문 개정이라고 부르고 싶다), 열두 번째의 축복은 변하여 저주로 고쳤는데, 이는 이단자들, 특히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에 너무 가깝게 연결시키려는 이단자들에 대한 저주였다. 이는 분명히 예수를 주님(Lord)이라고 부른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에 걸쳐, 이 개정된 기도문이 서서히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고, 공동 전례에 늘 암송되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저주를 암송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하여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옹호자들로부터 종교적 적대감에 시달려야 함을 의미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공식적인 파문(破門 혹은 黜教 excommunication)이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자들(dissenters)을 향한 무기로 점점 자주 사용되었다.

이런 상황,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서 요한 학파의 한 사람이 펜을 들어서, 그 동안 예배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 공동체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기초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이 복음서 기자는 저 요한 세베대의 가장 중요한 제자였던 장로 요한(John the Elder)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저자가 수 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에 의존하였

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료들이 그 성격상 인물 전기(biography)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련의 명상들(meditation)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저자는 유능한 신학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긴 논술로 만들어내어서 심오한 종합을 이룩하였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 자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Palestine Jews)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the Jews of the Dispersion)을 겨냥한 것이어서, 원래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때면 유대인 상용어를 설명하였는데, 곧 랍비(Rabbi), 메시아(Messiah), 실로암(Siloam),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 등을 설명하였다. 이런 모든 용어들은 팔레스타인 환경에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다.

이 자료들이 쓰여진 청중 대상은 이 저자가 예수의 비판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예수)이 그리스 사람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을 가르칠 셈인가?”(요 7:35)라고 말하게 하였을 때 그 정체를 잘 말한 셈이다. 정통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적 나사를 단단히 조임에 따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유대교를 떠나지 않으려는 감정적 열망 사이에서 그 마음들이 찢겨진 유대인 기독교도들을 향하여 요한은 호소하였다. 제4 복음서가 강조하는 바, 메시아이신 예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이신 예수, 유대 잔치의 새로운 의미로서의 예수, 이런 모든 것들은 회당에서 축출되거나 자퇴를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 복음서는 네 차례에 걸쳐 파문(출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요 9:22, 34; 12:42; 16:2). 이 저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이 믿음을 고백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 곳에서 언급하였다(요 12:42, 43; 19:38). 요한은 파문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한 사나이를 영웅처럼 취급하였다(요 9: 치료받은 눈먼 사람). 이 저자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그의 주된 대상은,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발견하였노라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려는, 경직된 정통 유대교 옹호자들을 놓고 한 말이었다. 그가 정죄하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한 사람을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요 1:47)라고 불렀다. 이런 유대인 기독교도들을 위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은 강력한 호소를 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이해되어야 제4 복음서의 극적인 내용의 뜻이 통하게 된다. 지혜문학의 영향을 넘어서, 이 복음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있는데, 즉 이야기를 시작하는 극적인 서두(序頭)와 예수에게 돌리는 일련의 이상한 단어들, 예를 들면 “나는...이다”(I Am)라는 말처럼 존재 동사(Be)를 포함한 것이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바로 그 마음에 논쟁적인 호소를 하여 예수가 주님(Lord), 왕(King),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임을 인정하도록 비판적인 유대인들을 되받아 쳤다. 그는 유대 성경을 사용하여, 가령 유대 성경의 서두라고 할 창세기 제1장의 창조 이야기를 비슷하게 끌어내어, 요한복음의 “서언”(序言 Prologue)이라고 알려진 그의 서두를 만들어 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유대 성경의 첫 말씀이 울려나왔다(창 1:1). “태초에 하나님” (In the beginning God)란 말은 땅이 형성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아무런 타협도 않고, 시원(始原)의 타자(他者)로 계셨다는 뜻이다. 요한은 창세기 이야기에 있는 이 말들을 의도적으로 암시하여, 예수에 대한 획기적인, 아마도 불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만한, 그런 주장을 하였는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매력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태초에”(In the beginning) 요한은 생각하기를 하나님(God)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the Word)도 계셨다. 말씀은 지혜처럼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였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 이하).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내쫓아 제거하려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논쟁하려는 강력한 주장이었다.

유대인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고 요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독특하게 나타나셨다. 그 말씀은 빛과 생명을 소유하였다. 예수에게 오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어둠 속을 걸어가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세상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창조한 세상이 아직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왔건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드러났건만, 그들(유대인들)은 이를 볼 수가 없었다. 레이몬드 브라운(Raymond E. Brown) 같은 저명한 성서학자는 이 서언이 초대 기독교도들이 사용한 찬송에 근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출처가 어디였든, 저자 요한은 그것을 선택하여 이야기기를 시작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 기독교도들을 그들의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신앙 전통에서 쫓아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의 그리스도 주장을 퍼부으려고 했다.

그런 그리스도 주장이 심오하기는 하지만, 이 저자는 또 다른, 아마도 더욱 강력했을 주장을 이 예수를 위하여 내세웠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 주장은 어디까지나 히브리 성경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의거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가 유대의 거룩한 개념에 호소하는 것은 예수를 유대교에 깊이 심으려는 시도의 일부였는데, 그렇게 하여 그들 자신의 삶에서 예수를 추방하려는 사람들, 또는 예수에게 헌신한 유대인들을 출교시키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신앙 이야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추방하려고 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는 그들 유대인의 삶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깊은 의미니,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주장조차 할 수 없는 터였다.

이들 두 그룹의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의 정황이 이 신학적 작업에 나타난 열정의 원천임을 보지 못하면, 제4 복음서는 인간 역사에서 알려진 가장 추악한 반유대주의(Anti-Semitism)와 종교적 독선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독선이야말로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의 순수성을 적당히 타협해버린 어두운 전통을 만들어 내어, 기독교를 부끄럽게 만든 재앙을 끼쳤던 것이다.

예수: “나는 ... 이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에서 불은 타고 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출 3장).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도록 신이 보낸 사자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이 명령을 회피하고자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고 심한 불안을 느꼈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그렇게 회피하려는 시도의 한 가지 방법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졸랐다(출 3:13 이하). 즉 내가 만일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고 물을 터인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번역하기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히브리 말로 대답하였다. 즉, “나는 나다”(I am that I am) 혹은 “나는 내가 되고싶은 대로 된다”(I

will be what I will be) 혹은 “나는 모든 것을 그 존재대로 되게 하는 자다”(I am the one who causes everything that is to be). 히브리 이름으로 야훼(Yahweh=YHWH)는 이런 내용의 본질을 택한 현대적 시도로서, 실제로는 발음할 수 없는 네 글자(Tetragrammaton YHWH)를 발음하려는 시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성스러움을 존중하여 YHWH라고 써놓고도 실제 발음은 Adonai라고 했다. - 역자주).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되었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to be)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모세를 불러내며 계시된 출애굽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존재, 존재의 근원, 존재의 완전, 존재의 총체, 아니 존재 그 자체였다. 하나님은 존재한다(God is).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내(I)가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보호하고 뒷받침하고 함께 나눈다”는 점이다. “나는 ... 이다”(I Am)는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말하려는 방식이다. “나는 .. 이다”(I Am)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불타는 떨기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나는 ... 이다”(I Am)가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제4 복음서의 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열쇠를 삼았다. 회당에서 파문되고 유대인 기독교도들이 쫓겨나는 현실에 직면하여,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의한 일부라고 묘사하였다. 예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는 ... 이다”(I Am)의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했다. 그것은 참으로 도발적이며, 논쟁적인 놀라운 주장이었다.

심지어 번역자들조차도 이 주장의 심오한 뜻을 늘 알아차리지는 못하였기에, 그들은 그리스어 원본에는 없는 주어를 그 놀라운 동사형태에다 추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였다. 가장 좋은 예는 요한복음서 8장에, 예수가 “너희는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내가 그라는 것(I am He)...을 알게 될 것이다”(요 8:28)라고 말한 곳이다. 그리스어에서는 실제로 “너희는 인자를 들어올린 후에야, ‘나는 ... 이다’(I Am)를 알게 될 것이다”로 되어 있다.(영어로 He라는 대명사가 없음 - 역자주). 너희가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너희는 “나는 ... 이다”(I Am)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들어올린다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들어올려짐을 뜻한다. 바울은 그것을 높여지심(exaltation)이라고 불렀다. 누가는 그것을 승천이라고 불렀다. 요한은 그것을 영광을 받는다고 부르곤 했다. 예수가 들어올려지는 것은 하나님, 야훼, “나는...이다”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니, 요한이 주장하는 바, 그런 영광은 예수가 세계의 기초가 놓아지기(창조) 전에 나누었던 영광이었다.

행여 요한의 독자들이 이점을 놓칠까 염려하여, 그는 예수의 정체성을 밝히는 같은 장(8장) 나중 구절에서(요 8:57-59), 예수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했다고 썼다. 이것을 들은 종교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잊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신도 안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요 8:57) 하고 그들은 믿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답하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이다”(Before Abraham was, I am)라고 했다. 이 구절은 잘못 번역해서는 안 된다. (실제 그리스어에도 현재형 동사를 써서, 에고 에이미, ego eimi = I Am로 되어 있는데, 모든 한국어 번역은 여기 “내가 있었다” 즉 I Was로 되어 있음 - 역자주)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 본문대로라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였다.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쳐죽이려고 했다. 그런 신성모독에는 당연한 처벌이었다. 요한이 주장하는 바는, 만일 이 주장이 참이라면, 예수를 배척하는 일,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일은 유대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항상 변하는 진리의 계시에 따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보전하겠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방하고 있는 것이었

다.

예수에 대하여 “나는 ...이다”(I Am)라는 주장은 이 저자가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 요한이 예수를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으로 그려낼 때, 예수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 6:35)라고 말했다고 썼다. 예수의 적대자들이 그의 출신을 의심하였을 때, 요한은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32)라고 말했다고 썼다. 궁극적인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예수가 “나는 생명의 물이다”(요 7:37, 여기서 Spong 감독의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 - 역자주)라고 말했다고 썼다.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 없는 인간 광야에서 실종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요한의 예수는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요 10:7), 또 “나는 선한 목자다”(요 10: 11)라고 말했다. 궁극적인 도착지가 어딘지 불확실해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라고 말했다. 회당에서 축출되어 철저히 절연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요한의 예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요 15:1 이하)라고 말했다. 죽음의 무서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제4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내가 부활이다”(요 11:25)라고 말했다고 그려졌다. “나는 ...이다”(I Am)는 요한의 그리스도에게 늘 적용된 주장이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the Word),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던 말씀이, 이 복음서의 “나는 ...이다”(I Am)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게 하였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된 곳은 없는데, 이는 분명히 역사상 실존했던 예수가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정체에 대한 신적인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마가복음서에서는 그런 말들이란 경우에 맞지도 않고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참말이 아니란 뜻인가? 그건 믿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참말이었고, 지금도 참이다. 그리스도는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이요,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이요, 소외된 자들에게는 돌봄이요, 배척 당한 자들에게는 포도나무요, 죽어 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였고, 지금도 또한 그렇다. 참된 진리란 문자적 진리보다 훨씬 깊은 것이다. 신앙의 증언들은 제4 복음서의 심오함을 확증한다. 제4 복음서로 하여금 문자주의의 시험을 거치게 하는(글자 그대로 옳으나 그러나 따지는 - 역자주) 것은 그 복음서의 참된 심오함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기독교 문서의 이 심오한 작품은 예수께 열린 마음 때문에 그들의 신앙 전통에서 추방당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그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불가분의 거룩한 존재였다. 거듭 거듭 예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알면, 당신은 그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초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로 초대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제4 복음서의 메시지다.

고통스러운 종교적 논쟁의 와중에서, 요한복음서는 이런 대담한 주장을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적인 능력을 탐구함으로써, 요한은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문자적 표현 저 밑으로, 심지어는 예수 생애의 역사적 사건들 저 밑으로 내려가게 하였다. 문자적 표면만 보는 사람들은 니고데모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예수는 이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태어나도록 초대하였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문자로 그대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살아야 할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창조하여 주신 대로 참된 자신이 될 용기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존재의 근원인 위대한 “나는 ...이다”(I Am)께 예배드릴 수 있으리요? 기독교인이란 생명 속으로, 사랑 속으로, 그리고 존재 속으로 초대되어, 각자가 그리스도와 같은 순정함으로 “나는 ...이다”(I Am)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의미에 대하여 수십 년간 명상과 숙고를 거쳐 탄생한 제4 복음서는, 가장 덜 문자적임과 동시에 가장 정확한 것이다. 오늘날 문자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가장 심각한 성경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성경의 깊이를 가장 천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자가 책 끝부분에서 말하기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20:31)라고 했다. 요한복음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당신은 이 복음서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믿으면 허튼 소리가 될 것이요, 표적(Sign)과 상징(Symbol)을 통하여 접근하는 진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입로가 될 것이다. 성경적 진리를 변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종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참으로 동정을 금치 못할 일이다.